

데스크 시각



홍행기
정치부장 겸 편집부국장

여야 정치권이 '터부' (taboo: 금기) 논란으로 시끄럽다. 7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라는 메가 이벤트를 기화로, 평소라면 언급생심 꺼내지도 못했을 말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사면' 발언에 이어 최근엔 송영길 대표의 '대깨문' 발언이 당의 내홍까지 불러일으켰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박근혜 탄핵 찬성' 발언으로 홍역을 치렀다.

정체성 확립에는 도움이 되지만

어제오늘 일이 아니긴 하지만, 다양한 사회집단 가운데서도 특히 정치권에선 터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독일의 문화인류학자 하르트무트 크라프트가 쓴 '터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거의 모든 것'에 따르면, 터부는 특정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개인이 삼가야 할 규칙이다. 특정 집단의 의식적·무의식적 질서를 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터부를 통해 구성원들은 정체성을 확립하고 확인한다.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집단의 정체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권에서 터부가 중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은펜칼럼



옥영석
농협 광주공판장 사장

지루한 장맛비가 이어지더니 이번 주는 온통 째뽕 더위 속이다. 시장에서 지나다 보면 우리네 일상은 계절은 말할 것 없고 절기에 민감하다는 것을 실감하곤 한다. 대보름에는 부럼을 까고, 복날엔 삼계탕을, 가을이 무르익을 즈음 대하를 구워 주어야 하고 찬바람이 불면 꼬막을 살아야 한다. 봄 조개, 가을 전어, 겨울 꼬막 정도 챙겨서는 이 동네에서는 식도락가 축에도 끼지 못한다. 복날이면 언제나 곤혹스러운 기억이 떠오른다. 20여 년 전 만해도 삼복에는 늘 영양탕집이 발 디딜 틈 없이 성시를 이루었고, 선배들은 어쩌나 즐겨 드시던지 점심에 간 식당을 저녁에 들르는 분이 많을 정도였다. 굳이 복날이 아니라도 여름철 내내 메뉴 선택권이 없는 나는 선배들 틈에서 삼계탕을 주문하느라 눈치를 봐야 했다. 어릴 적 동네 사람들이 소나무에 개를 매달아 놓고 두들겨 잡던 기억도 지울 수 없다. 삼복더위가 돌아왔다. 타는 듯한 더위와 이글거리는 아스팔트 위에서도 나를 흥얼거리게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수박을 먹는 즐거움이다. 싱그러운 초록 바탕에 얼룩덜덜한 호피인지 모를 줄무

기 고



조윤성
조선대학교 미술체육대학 교수

지난 6월 16일 광주광역시 중양공원(1지구)의 사업 조정 내용을 발표하고 관련 심의에 상정하여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분양가 논란, 대형 아파트 논란, 시공권을 둘러싼 시행사 내부 갈등 등 모든 부정적인 용어들로 점철되었던 중양공원 사업에 대해 광주시가 나서서 이제라도 '계획 단계'를 넘어서 '실행 단계'로 나아가기로 한 점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우리는 그간 사업 조정의 내용이 온통 아파트를 어떻게 짓고 분양하느냐에 모아져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있어 아파트는 사실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수의사업' 부문에 불과한데, 우리는 이 사업의 본질인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이야기를 들은 것이 없다는 점이다. 이 사업의 '목적사업'은 공원 조성이다. 결국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은 어쩌면 광주시민이 함께하고 자랑할 수 있는 광주다운 공원을 만들기 위한 산고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특별시로 계획된 세종시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눈 위

터부의 정치학

정치권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터부가 소멸되고 새로운 터부가 만들어진다.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에선 '군부독재'나 '5·18광주민중화운동'과 같은 단어는 정권 내부에서 결코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터부로 통했다. 또 촛불혁명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주당 내 실세인 '친문'을 비하하는 단어들이나 '전직 대통령 사면'과 같은 용어가 금기로 잡혀 왔다. 이는 야당도 마찬가지로써 국민의힘에서는 정권의 몰락을 초래하고 분열을 촉발한 '탄핵'이나 '대국기 부대'같은 단어가 금기시되어 왔다. 만약 터부시된 이들을 단어를 사용하는 내부 구성원이 있다면 그들은 소속 집단 구성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제명될' 위험에 직면했다. 그들이 사용한 금기시된 단어들이 집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커다란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송영길 대표는 지난 5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소위 '대깨문'이 '누가 되면 차라리 야당을 (찍겠다)'는 단일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 대통령을 지지 수도 없고 제대로 성공시킬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고 말했다가 큰 논란이 됐다. '친문 세력이 당내 유력 후보인 이재명 경기 지사를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대깨문'은 문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용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용해선 안 되는' 일종의 금기어였는데 송 대표가 이 금기를 깨뜨린 것이다. 당연히 친문 강성 지지층의 비난을 초래했다. 이준석 대표도 지난 6월 3일, 대구 합동연설회에서 "국가가 통치 불능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그 시점에 정당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

여름엔 역시 수박

니가 선명하고 하얀 분가루 얇게 묻은 것을 골라 한칼이 가르면, 보기가 해도 시원스런 과즙이 쏟아진다. 달기로 치면 참외나 멜론도 뒤지지 않겠지만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진 리코펜이 토마토보다 많은 수박은 전립선암 발생을 억제하고, 시트룰린이 산화질소를 증가시켜 혈관의 이완에 도움을 준다. 이노 작용을 촉진하여 몸이 붓는 것을 방지하고 방광염, 신장염과 혈압 조절에도 효과가 있다. 더욱이 이만 원이면 온 가족이 일주일 내내 먹을 수 있는 이 영물을, 나는 하늘의 선물이라 부르고 싶다. 마트에서는 여전히 복달임 음식으로 닭, 오리, 장어, 전복이 많이 나가는 편이지만 영양 과잉을 우려해 수박이나 공쿠수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고단백의 육식에서 해산물과 채식으로 소비 패턴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수박을 좋아한다고 잘 익은 것을 고르길란 쉽지 않다. 수박은 꼭지부터 수분이 마르기 때문에 갈색으로 변색되었거나 말라 비틀어졌다면 발에서 썩어 오래됐으니 꼭지가 마르지 않고 녹색을 띠어야 신선한 것이다. 껍질이 얇고 검은 줄무늬가 진해야 하며, 살짝 두드렸을 때 뚝뚝하는 맑은 소리가 나야 잘 익은 것인데, 밑바닥 배꼽이 작을수록 당도가 높다. 좋은 수박을 선택하면 보관법도 알아들 일. 자르지 않은 수박을 통째로 냉장실에 두면 자터카로틴 등 영양소가 빠져나갈 수 있으니 21℃ 정도의 상온에 보관하는 게 낫다. 남은 수박에 랩을 씌워 보관하면 냉장고에 두어도 세균 수가 급증하니 껍질은 썰어내고, 과육만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해야 한다.

이제 광주다운 대표 공원을 만들자

에 새로 호수공원을 조성하였다. 세종호수공원은 지금 세종시의 중심이 되었다. 인천 송도신도시도 새롭게 도시를 만들면서 중심에 인공 호수공원을 조성하였다. 지금은 인천 하면 송도센트럴파크가 떠오를 정도로 대표 공원이 되었다. 울산광역시도 기업의 후원까지 유지해 가면서 울산대공원을 조성하여 광역시로서의 품모를 갖추게 되었다. 중앙공원이 품고 있는 품암저수지는 지금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저수지이지만, 조선시대로부터 그 원형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원래 자연적으로 물이 모이는 지형이다. 거기에 독을 쌓아 지금의 품암저수지가 되었다. 품암호수는 세종시나 인천처럼 눈이나 벌 위에 인공적으로 조성해야 할 호수공원이 아니다. 자연의 경관이 살아 있는 곳이다. 이런 품암저수지를 경관 공원으로 탈바꿈시켜 광주의 대표적인 명소로 만들 수 있느냐가 바로 이번 사업의 핵심인 것이다.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정원박람회와 시민 참여도를 보라. 공원이 조성되어 슬럼화된 인근 도심지가 되살아나고, 청년과 예술가들이 모이는 창작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인근 거리도 다채로운 테마로 채워지는 다양한 사례를 보라. 광역 공원의 조성은 단순히 산책 공간 하나를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도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고 있다. 광주는 품암호수라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비록 민간사업이긴 하여도 재정도 확보되었다. 우리의

했다. 제1야당의 터부인 '탄핵 찬성'이라는 단어를 공개적으로 깎아내리면 이 대표도 당내 친박 세력의 강한 반발을 샀다. 집단의 금기를 공개적으로 침범하고 깨뜨린 이들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는 그러나 비판은 받고 있을지언정, 아직까지 '제명'될 위험에까지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정권 재창출 또는 정권 탈환'에 대한 간절함이 지도자의 '금기 깨기'를 전략적 차원에서 묵인 또는 용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금기 깨뜨려야 집단의 발전 가능

하지만 기존의 금기는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당장 대다수 민주당 대선후보들이 '노무현 정신 계승'을 외치는 등 선거 캠페인에서 노 전 대통령을 앞세우는 것이나, '정통 보수'를 자임해 온 국민의힘이 30대 원외인사를 당 대표로 선출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하르트무트 크라프트는 "터부에 굴복하거나 터부를 침범하고 폐지하는 것, 그리고 터부가 새롭게 생성되는 것은 항상 변화 속에 있는 과정"이라면서 "터부는 개인과 단체에 자신감을 안겨 주고 정체성을 확립시켜 준다. 그러나 터부를 깨뜨리는 것은 집단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이미 획득한 정권을 지키려는 진보와, 빼앗긴 정권을 되찾으려는 보수가 천길 낭떠러지 위외나루다에서 만나 싸우는 건곤일척의 승부다. 그만큼 양 진영의 결기와 에너지가 넘치는 선거이기도 하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폭발적으로 융솟솟치는 사회적 에너지가, 이미 시효가 다 된 터부를 정리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탄생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社說

공직자 농지 소유·이용 실태 전수조사해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절반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지역 일부 단체장이 소유한 농지의 규모는 1만 평에 가까운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의원들도 대부분 농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옛 그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238명 중 122명(51.2%)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52.2ha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특히 김준성 영광군수는 3.3ha(9851평)를 보유해 전국 단체장 중 가장 많았고, 이상의 합평균수는 2.8ha(8512평)로 두 번째였다. 전남도의회 의원들의 경우 62.5%(56명 중 35명)가 농지를 갖고 있었다. 다만 이들이 실제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농민단체협의회는 그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재인 농지는 농업 생산에 이용해야지 투기와 자

산 증식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직자의 농지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현행 헌법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하위 규범인 농지법은 주말 체류 농지 등 16개 예외 규정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일부 공직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농업인의 소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농지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경실련의 조사 결과는 2019년 기준 전체 농가의 48%에 해당하는 48만여 가구가 경지가 없거나 0.5ha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공직자들이 얼마나 과도한 농지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 준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의 농지 소유 및 이용 과정에 불법이나 투기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돈 되면 무엇이든지’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

10대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강·절도는 물론 보험사기·보이스피싱·성매수 공갈까지 성인 범죄 뺄질 정도다. 돈만 되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식인 듯하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에서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를 저질러 붙잡힌 미성년자는 2018년 1623명, 2019년 1536명, 지난해 1531명 등이었다. 고등학교 1학년 B군 등 7명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휴대전화 어플로 '조진만남'을 하려는 성인 남성을 유인, 10여 차례에 걸쳐 2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 했던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 피해 남성들에게 각각 25만~500만원까지 갈취한 것이다. 광주·목포·성남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모두 돈이 필요해 자발적으로 범행을 가담했다고 한다. 청소년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모

든 범죄는 보험 사기였다. 지난해 11월 전남경찰에 붙잡힌 일당 30명 중 11명은 10대였는데 이들은 교통법규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도로 길목에서 기다리다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으면서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벌써 오래 된 일이지만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4명은 '10억 원이 생긴다면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 이는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물질만능주의에 물들어 있는지 보여 준다. 하지만 이 모두를 청소년들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을 다시 돌아봐야 할 때다. 아울러 청소년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나 지자체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無等鼓

1801년 12월 신안 우이도를 출발한 문순득은 흑산도에서 흥어를 사 가지고 돌아오다 1802년 1월 18일 태사도에서 풍랑을 만나 표류하게 된다. 이때부터 1805년 1월 8일 다시 고향 우이도로 돌아올 때까지 3년 2개월이란 긴 세월이 걸렸다. 문순득의 첫 표류지는 류큐국(일본 오키나와)이었다. 이곳에서 9개월을 머물다 귀국하기 위해 조공선을 타고 중국으로 출발했다. 조선으로 바로 오지 못한 이유는 당시 약탈을 일삼는 왜구 때문에 중국을 거쳐 육로로 귀국하는 송환 시스템 때문이었다. 하지만 또다시 표류하게 되고 두 번째 장례를 치러준 데 보답하기 위해 문순득의 아들 이름을 '여환(呂還)'이라 지어 주었다. '머나먼 표류길에서 돌아왔다'는 의미가 담겼다. 220년전 흥어 장수 문순득의 생생한 표류기를 만날 수 있는 축제가 오는 31일부터 4일간 신안 자은도에서 열린다. '신안 국제 문페스타'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문순득이 표류한 필리핀 등 3개국 도시 배와 있던 정약전을 만났기 때문이다. 정약전은 문순득의 기막힌 표류 이야기를 듣고 95쪽 분량의 '표해시말'을 썼다. 문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